



## 디자인코리아 2014 성료

### ‘디자인은 창조경제의 시작’ 테마로 2천여 우수 제품 전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디자인코리아 2014’가 지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디자인 우수상품 2천여점이 전시됐으며, 디자인의 밤, 디자인 비즈니스 콘퍼런스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디자인코리아 2014는 ‘디자인, 창조경제를 꽃피우다’를 주제로,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발맞춰 다양한 산업과 제조업의 창조적 융합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은 하나의 산업이면서 다른 산업과 융합할 때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는 ‘디자인은 창조경제의 시작’이라는 테마의 주제관과 5개의 테마를 소개하는 성장기획관, 기업관, 체험관, 특별관, 디자인메가트렌드관으로 구성됐다. 또한 세계 유수의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및 GD상품 등 국내외 기업

180여 개사 2천여 점의 디자인 우수제품을 전시했다.

#### 디자인으로 만들어가는 창조경제 디자인 산업 현재 확인

전시장에 들어서면 ‘디자인 창조경제의 시작’이라는 주제관이 눈앞에 들어온다. 주제관에서는 행사의 총체적 주제를 전달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창조경제를 꽃 피우기 위해 융복합 신제조업을 창출하고 주력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을 강화하는 제조혁신 3.0을 위한 미래 디자인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영상이다. 주제관에서 이어지는 성장기획관은 ‘디자인, 인간 중심의 창조경제’를 콘셉트

로 융합, IoT, 서비스, 공공정책, 환경 등 5개의 코너로 구성됐다.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디자인 소통을 주제로 한 특별관에서는 디자인 명예의 전당과 신진 디자이너가 조화를 이루는 월드베스트 디자인관, 주얼리디자인, 창의융합형 디자인 인재육성관,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 한일 차세대 디자이너전 등이 열렸다.

전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한 창조디자인 기업관과 디자인메가트렌드관에서는 경쟁력 있는 디자인으로 디자인 시장의 오늘을 주도한 다양한 우수 디자인 제품이 전시됐다.

창조디자인기업관은 6197㎡ 공간에 디자인전문기업 43개사 등 총 180여개사가 참여했으며, 디자인메가트렌드관은 6502㎡의 공간에 2014 우수디자인 상품 1224점,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1차 심사 통과 작품 560점,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수상작 36점 등이 전시됐다.

### 디자인 통해 새 생명 얻은 업사이클디자인

성장기획관에서는 본질적 가치로 환원될 때 디자인이 창조적 가치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음을 제시했는데,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디자인이 선보였다.

프라이탁(Freitag, 스위스)은 1993년 스위스 프라이탁 형제가 만든 업사이클링 전문 브랜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방수 덮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방(메신저백)을 제작했다. 방수천과 안전벨트, 에어백 등을 활용, 수작업을 통한 희소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메신저백은

고가임에도 전세계 350여개 매장에서 매년 40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

디자인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글로브호프(Globe Hope, 핀란드)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중 하나다. 광고현수막, 군복, 안전벨트, 공장작업복, 병원이불, 보트의 돛까지 재활용해 가방, 핸드백은 물론 옷, 파우치 등을 만든다. 특히 군용품으로 만들어진 밀리터리 패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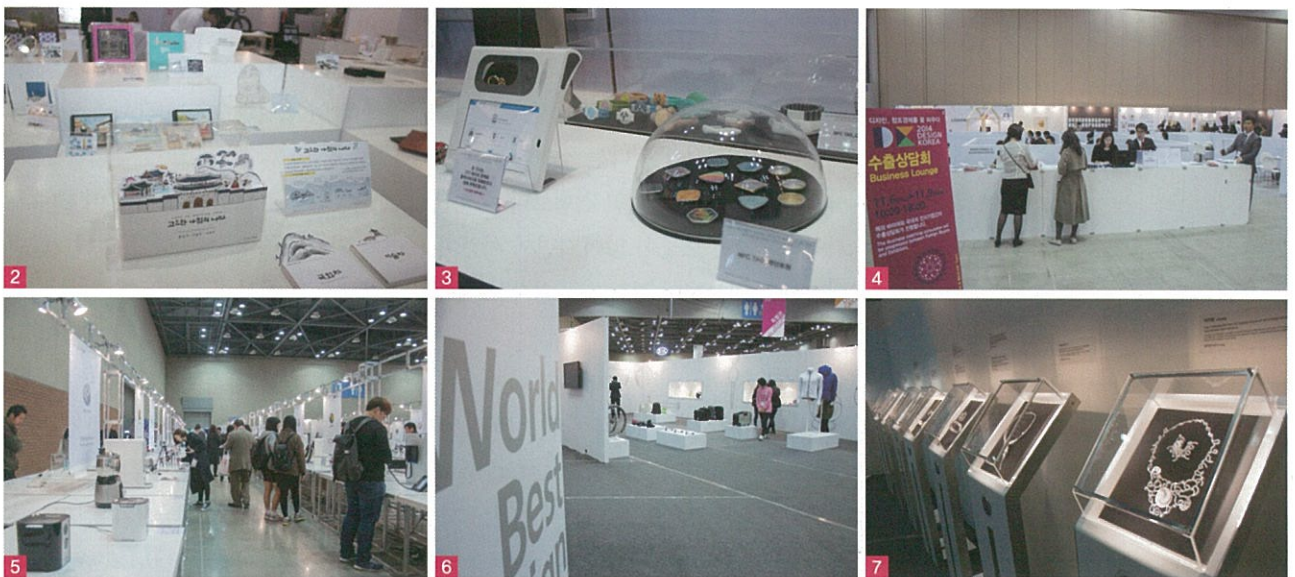
터치포굿(Touch4Good, 한국)은 현수막이나 지하철 광고판 등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파우치 등의 패션소품을 제작 판매한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친환경 세제로 세탁한 후 엄격한 공정을 거쳐 가방으로 재탄생된다. 파우치, 액세서리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디자인 비즈니스 콘퍼런스 개최

국내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 등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노

하우 등을 전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전시회 첫날인 11월 6일에는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중국 산업디자인협회 주타오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 디자인 비즈니스포럼’이 열렸으며, 2일차에는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해외 주요 디자인 유통망 관계자들이 참여한 ‘해외유통망 진출전략 포럼’, 3일차에는 해외에서 성공한 국내 디자이너들이 해외 창업 및 취업 전략을 전수하고 전문 컨설턴트의 취업 멘토링을 통해 해외 기업 정보, 포트폴리오 구성 등 실질적 방법을 알아본 후 실제 해외 디자인 기업의 인터뷰가 진행된 ‘해외 창업·취업 전략포럼’이 진행됐다.

또한 부대행사로 학생들과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강연, 토론 중심의 디자인 토크콘서트와 워크숍,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멘토링 등을 비롯해 어린이와 학부모를 위한 어린이 자동차디자인·증강현실 종이접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인기를 모았다.☞



1. 디자인코리아 전시장 전경 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들 3. 성장기획관에 전시된 NFC 태그제품들 4. 수출상담회장  
5. 디자인메가트렌드관에 전시된 우수 디자인 상품들 6. 월드베스트 디자인관 7. 주얼리관